

[목회자 모임]
보라 새 것이 되었고

2020. 1. 3. 이현래 목사

새해 첫 날이다. 오늘은 신년 하례하는 날이다. 반갑다. 1년 후에 만나니까 더 반갑다. 이럴 때 기가 막히게 좋은 성경구절이 있다.

“보라 새 것이 되었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고후5:17)

이 구절은 꼭 신년 첫날 읽어야 될 것 같다.

옛 것은 가고 새 것이 왔다는 말이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역사다. 옛 것은 가고 새 것이 오는 역사다. 하나님은 한 번 창조하고 어디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창조자시다. 항상 창조를 하시니까 늘 새로우신 분이시다. 우리는 낡아지고 부패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낡아지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분이시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에게는 소용이 없는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알고 보면 그분이 살았기 때문에 항상 산 사람만 상대하지 죽은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생명체도 다 그렇다. 때라고 벗겨 놓은 것은 전부 옛 것이다. 전에는 내 몸이었는데 지금은 내 몸이 아니고 애물단지가 되어 벗겨내는 것이다. 그 때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버리는 것이 시원해서 시원하다고 하지, 내 몸에 붙어 있던 것인데 어디에 있지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전통이나 역사에 매여서 그것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보존하려는 사람도 너무 많다. 지식의 세계는 보존이 필요한데, 생명의 세계는 늘 새롭기 때문에 보존이 필요가 없다. 늘 살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콩이 한 번 나고 다시는 안 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썩지 않도록 만들어서 보존하겠지만 늘 콩이 있는데 박제를 만들어서 보존할 필요가 없다.

기독교도 변화가 잘못될까 봐서 방부제를 넣다보니까 그것이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되어서 완전히 미이라처럼 되어 버렸다. 살아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늘 살아 있는 것이니까 항상 살아 있는 그대로 있다. 생명은 다 그렇다. 만 년 전에, 10만 년 전에 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콩이 있으니까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지금 콩을 콩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만 년 전의 콩을 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세계와 지식의 세계는 너무 다르다. 구약과 신약도 너무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은 전부 객관적이고 물질적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대신 받고 죄를 갚아도 대신 갚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앞으로 올 일을 위해서 그렇게 예비한 것뿐이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와 우리의 관계에서도 대신 했다고 하니깐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 내 죄를 대신했다. 어떻게 내 죄를 대신하는가? 내가 죽을 것인데 어떻게 대신 죽어 주었는가? 대신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구약 성경은 다 대신이다. 제물도 내 대신 제물이니 내가 제물이 된 것이 아니다. 양을 잡아 드렸는데 그것은 양이 나를 대신한 것이다. 거기서 대속의 개념이 나왔는데 양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진노를 푸셨다. 그리고 축복을 했다. 이것이 구약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가까이 해보려고 양에 안수를 했다. 내 손을 얹어서 동일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되겠는가?

사람은 살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늘 잊어버린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자. 나를 살리려고 교통사고에 뛰어들어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첫날은 너무 감격할 것이다.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그게 안 된다. 시간이 가면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그냥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변해버린다. 그래서 한참 하다보면 힘들어지고 귀찮아지고 그렇게 된다. 하물며 제물이 나를 대신 했는데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되겠는가? 안되기 때문에 해마다 되풀이 했다는 것이다. 히브리서의 말이 그 말이다. 그것이 안 되니까 해마다 되풀이 하지 않으면 왜 되풀이 하겠는가?

신약에 와서도 또 함정이 생겼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대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구약시대에는 그래도 금년에 잘못되었으면 내년엔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이제는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알고 보면 그 대신에 제사가 안 되면 절망인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대신이라도 할 것이 있었는데 신약시대에는 대신 할 것이 없다.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린 분이 있는데 또 누가 제사를 대신 드린다고 되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신약은 성육신의 시대다. 말씀이 육신이 된 시대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 시대가 신약시대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렘31:33)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알기 때문이다.(렘 31:34) 우리가 구약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고 구약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구약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작년의 옷을 그냥 입고 있으면 안 된다. 오늘은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물론 가난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새해 첫 날은 새 옷을 입는다. 나도 1년에 한 번씩은 양복을 얻어 입었다. 시골에는 양복점도 없을 때였으니까 바느질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부탁해서 학생복을 1년에 한 번씩 맞추어준다. 그러면 설날 입으려고 안 입고 있다가 설날에 입고 나오는 것이다. 설날이 즐거웠던 이유가 새 옷을 입기 때문에 즐거웠던 것이다. 떡 먹고 새 옷 입으니까 설날에는 헌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 없다.

생명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몸도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때가 나온다. 자꾸 새 것이 나오니까 때밀이가 나오고 때를 미는 직업도 나온다.

뱀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는다. 알고 보면 옷을 벗는 것이다. 우리 처럼 매일 피부가 벗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놈은 1년 내내 모아 놓았다가 한 번에 벗는 것이다. 안 벗기면 속에서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벗겨 내야 되는 것이다. 우리도 매일 벗기면 좋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벗겨야 한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는 1년에 한 번이라도 벗어야지 한 번도 안 벗으면 그 안에서 죽는다. 뱀은 허물을 안 벗으면 죽는다. 그 놈이 허물을 벗을 때 보면 담 사이로 다니면서 억지로 자기 허물을 벗긴다. 그래야 살기 때문이다. 우리도 껍데기는 벗겨야 산다.

예가 좀 지저분하지만 하여간 그렇다. 똥도 매일 싸야 되고, 오줌도 매일 누어야 되고, 때도 매일 벗겨야 된다. 살아 있기 때문이다. 똥을 못 누어도 죽는다. 고종 황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항문이 없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수술을 하겠다고 하니깐 어디 그럴 수 있느냐고 대비께서 진노해서 전하의 몸에 어떻게 칼을 대느냐고 해서 결국 똥구멍이 막혀서 똥을 못 누니까 죽었다. 똥이라는 것이 더러운 것인데 그것은 몸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내 버려야 된다.

우리도 안 되는 것은 내 버려야 될 것 같다. 안 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데 이것이 도저히 나에게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왜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죽었다고 나에게 무슨 효과가 오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이다. 무슨 죄 때문에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에게 오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묻기도 어려웠다. 이게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다.

김**목사가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너무 좋다. 아무나 저렇게 질문을 못한다. 여러분도 속에 뭔가 찝찝한 것이 있어도 어디 가서 질문을 못한다. 너무나 보편화 되었으니까 나는 용기가 없어서 그러지 못했다. 물어보아야 되는데 물어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짊어지고 살았다. 버릴 것은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염치 불구하고 내 놓아야 된다.

똥이 마려우면 어디든지 싸야 된다. 참고 있으면 죽는다. 똥은 2~3일 참아도 되고 열흘까지 참는 사람도 있는데 오줌은 참으면 죽는다. 오줌을 참으면 몸에 요독이 올라서 죽게 된다. 그것이 신장으로 올라가면 신장염이 되어서 사람이 죽는다. 오줌을 안 누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다. 똥은 참으면 되는데 오줌은 참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오줌은 참으면 다음에 안 나온다. 참으면 딱 긴장해서 안 나온다.

오줌을 못 누면 참 괴롭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오줌을 못 누어서 호스를 넣어서 뽑아내는데 정말 괴롭다. 뽑을 때마다 얼마나 아프는지 아는가? 꽃을 때 아프고, 빨 때 아프고 했다. 응급실에 있을 때 계속 꽃아서 상당히 오래 있다가 뽑았다. 내일 아침에 뽑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밤에 사고가 난 것이다. 죽을 뻔 했다. 그때 마침 사위가 그날 밤에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사위가 의사니까 뺐다. 빼고 나니까 얼마나 아프는지 세상에 그렇게 아픈 것은 처음 봤다. 방광에 관계된

자리가 아픈데 강력한 진통제를 밤에 두 번이나 맞았다. 참을 수가 없었다. 세상에 그렇게 아픈 것은 처음 경험했다. 소변을 참으면 병이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다. 밤에 오줌이 한 번만 나오는 사람은 괜찮다. 나는 밤에 오줌을 계속해서 누어야 된다. 그런데 밤에 의사가 와서 세 번씩 꽃아 보라. 보통 일이 아니다. 오줌을 잘 누는 것을 참 행복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별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얼마나 통쾌하고 좋은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모른다. 옛날부터 이 구절은 참 좋아했다. 좌우간 무엇인지 모르지만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몰라도 이 말씀이 너무 좋다.

금년 초에 이제 내가 진짜로 새롭다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새 것이구나, 옛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 전에도 새 것, 새 길을 걸어왔다. 내가 아브라함 안에서 부름 받을 때 이미 새 길로 들어온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워진 것이다.

그런데 생명이 새로워지는 것은 공장에서 나온 것과 다르기 때문에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다. 가다가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생명이라는 것이 살다가 죽으면 안 된다. 계속 가야 된다. 손가락을 계속 묶어 두면 피가 안 통해서 그 손가락만 죽어 버린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름 받을 때 나는 이미 새로운 곳으로 부름 받았다. 부름 받아서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지 부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해마다 새해가 돌아오면 ‘새해구나.’ 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 예배도 따로 안 보고 금년에 金목사가 와서 처음 했다. 신년 예배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해마다 집회를 했다. 그래서 따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기도 했고, 신년이라고 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 같은 날인데 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해서 안 하기도 했다.

오늘 교역자 모임에 나오게 되니까 ‘새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서 어제 밤 내내 이 생각을 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말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잘 번역되었다. 보라는 말은 없는데 그 말을 넣어서 시적으로 표현해 놓았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behold라는 말이 나와 있다. “The New has come. behold, The New has come.” 이것이 하도 좋아서 나는 외웠다. 안 외워지니까 지금 며칠 동안 계속해서 외운 것이다. 이 말씀을 외우려고 영어로 써 놓고 했다.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안 외워진다.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해야 안 잊어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이것은 평생 안 잊어버려야 할 구절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새 것이 많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새 것이 없다. 전도서에 말한 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해 봤는데 다 옛날 사람들이 하던 것이고 새 것은 아무 것도 없더라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도 도르래를 가지고 마당에서 굴리고 다니는 것을 시골에서는 대나무로 만들어서 가지고 논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것을 했는데 요즘 아이들도 그것을 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새 것은 없구나. 옛날에 우리가 하던 것인데 애들은 아직도 그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도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야 4차 산업시대가 되고 하면 없어지겠지만 새 것은 없다. 다 옛날 사람들이 하던 것이다. 국회에서 맨날 싸움질 하는 것도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이다. 어제 오늘 하는 일이 아니다. 건국이후부터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다. 6.25 전쟁 중에도 싸웠다. 저 버릇이 없어지겠는가? 다 옛날 사람들이 한 것을 되풀이 하고 있다. 말만 바뀌지지 늘 되풀이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것이 없다. 전혀 새것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째서 새것이 될 수 있는가? 죽고 다시甦기 때문에 새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새것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관계가 안 된다. 예수님은 되는지 모르지만 나와는 관계

가 안 되니까 새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됐으면 나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되었을까?

왜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서 세상이 바뀌지고, 바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 예수와 하나님 사이는 되었겠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되는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시간이 2천년이 흘렀는데 왜 하나님과 나는 완전한 화해가 안 되는가? 완전한 화해가 안 되었으니 새것이 아니다. 옛것이다.

그 이유가 모호했는데 이제는 간단하다. 예수 안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죽어봐야 소용이 없다. 내가 죽어도 소용이 없고 예수께서 죽으셔서 새것이 되었으니 내가 그 안에서 되는 것이지 그 안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무리 죽었다 살아났다 하더라도 나와 무슨 관계가 없다.

잘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대신에 죽었다고 하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대신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도로 다 없어진다. 내 대신 뭐를 해준 것이나 내 대신 빛 갠아줄 수 있는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없어진다. 그때는 너무 감사하지만 시간 지나면 그것도 없어진다. 다음에 그 사람이 돈 빌리러 오면 한번은 빌려주지만 2~3번 오면 신경질 난다. 나는 거기서 돈을 얻어서 빛을 갠아주지만 내가 그 사람 빛을 계속 갠아주면 문제가 생긴다.

대신 했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 이것을 확실히 정리하자. 예수님이 대신 해주었다는 것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이 대신 했다는 말을 무엇으로 바꿔야 한다. 예수님이 대신 했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고 해도 시간이 가면 내 속에서는 대신해준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구약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성육신의 시대에 와서 대신하면 성육신이 안 된다. 예수님 혼자 성육신했지 우리는 안 되니까 이 성육신이 무엇인지 모른다. 예수님 혼자 죄를 도말시켰으니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효과가 없다.

이것을 믿으라고 강요를 하는데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해 준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되는데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되었다. 남한테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 나도 안 되는데 남한테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율법이 구약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율법이 아니고 안하면 안 되면 율법이 되는 것이다. 내가 못하면 뭐를 해야 한다. 나한테 돼야 그것이 복음이다. 되는 것이 복음이다.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하라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어떤 사람에게 너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것은 쉽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쉽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선생님도 할 수 있고, 부모도 할 수 있고, 친구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교회 안에서 내가 해보니까 그것이 안 된다. 분명히 잘못된 일인 줄 알고 너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안 고쳐진다. 우리 교회 온 사람만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안 되고 안 고쳐진다.

언제 한번 거짓말을 잘한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온 교회가 그렇게 다 알고 있다. 사람이 참 좋은데 그래서 나는 사람이 좋으니까 참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 조심스럽게 비밀한 장소에서 이야기했다. 너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다고 하는데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 어떤 반응이 오는 줄 아는가? ‘목사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정 반대이다.

내가 볼 때는 거짓말이지만 자기가 볼 때는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화가 난다. 얼굴이 벌개지면서 생전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 남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모르는구나. 자기는 그것을 전혀 모른다. 모를 수밖에 없다. 자기는 옳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에 살고 있는 게가 있다. 어떻게 가는 것이 그것이 앞으로 가는 것인가? 옆으로 가는 것인가? 앞으로 가는 것인가? 우리는 잘 모른다. 그놈이 편리한 대로 가는 것이다. 앞으로 기어가기도 하고 옆으로 쪽 가기도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옆으로 가는 놈을 보고 반듯이 가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복음은 그렇게 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다시 살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다시 살라고 한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다. 생각해봐라. 오죽하면 그렇게 살겠는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로서 이유가 있어서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막으면 되겠는가? 안 된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가로막으면 안 된다. 자기는 지금 살려고 하는 것이다.

정신과 환자를 대해보니 아주 거짓말을 잘한다. 왜 잘하는가?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귀신들렸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밥을 주면 뱉어버린다. 독을 넣어서 못 먹는다고 누가 독을 넣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새것을 갖다 줘도 독을 넣었다고 뱉어버리고 못 먹는다. 그런데 입을 벌리라고 했더니 입안이 백태가 끼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어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로 내가 이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약을 넣어서 못 먹겠다고 한다. 그것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자기를 변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고 자기 변명을 할 수 있으면 정신과에 가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변명이 불가능해지고 그것이 막히면 정신과에 간다. 그것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틀어막아 버리면 안 된다. 거짓말인줄 알지만 거짓말하는 대로 놔두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산다.

복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못 산다. 거짓말 하지 않고는 못 산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하지 않고는 못 산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 그래야 자기 존재감이 생긴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자랑을 해야 살지 돈 자랑을 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어서 못 산다.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 소문난 부자 영감이 있었다. 그분은 아주 가난한 사람처럼 고무신을 신고 다닌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자인줄 알고 있는데 고무신을 신고 다닌다. 그 사람은 어디가면 아닌 체 하는데 돈 자랑을 한다.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체 하는데, 어디 가서 말을 내 놓으면 돈 자랑을 한다. 사람은 자기변호를 할 수 있어야 사는 것이다. 자기변호가 불가능하면 죽는다. 그리고 자기변호가 불가능하면 정신과 병원을 가버린다.

내가 그런 실수를 많이 했다. 변호를 못하게 해 놓았더니 정신병이 되었다. 변명을 하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변명을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렸다. 나는 자기를 돕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평생 동안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다.

술을 조금씩 먹고 코가 빨개서 항상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늘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다가 한번 기회가 왔다. 장티푸스가 걸렸는데 간신히 나아서 이번이 기회다 하고 장티푸스가 어떤 병인지 아느냐, 장이 구멍이 나는 병이다. 그런데 너 앞으로 술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술을 못 먹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정신병이 되었다. 술을 먹으니 살았던 것이다. 그런 사람은 술을 먹으라고 해야 한다. 적당히 먹으라고 해야 하지 술을 못 먹게 해버리면 정신병이 걸린다. 잘못하면 사람 대하기 참 어렵다. 내가 평생에 그런 사람이 둘이 생겼다. 두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해 놓았다.

서튼 의사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다. 병원에 가면 의대 4학년 학생을 PK라고 하는데 Patient's killer 라고 환자 죽이는 사람이라고 한다. 목회 한다고 하다가 잘못하면 사람 죽인다.

생명은 계속 새로워져야 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열어주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것 그대로 있게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려오지 못한 것을 말해야 참 사람이라는 것이 알아진다. 더 이상 이상이 없어진다.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신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믿는 주님이 신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고 믿는다면 되겠는가? 안 된다.

신이면 신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어야 되지 내가 인간인데 인간인 나로서 신도 되고 인간도 되는 분을 나로서 어떻게 알겠는가? 불가능하다.

무당들이 신접해서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왜 그런지를 내가 모른다. 방언만 해도 내가 모르겠더라. 어떻게 방언을 하는지를

모르겠더라. 왜 저렇게 방언이 나오는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작두위에서 춤을 추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 사람과 친구가 되겠는가? 그 사람 안에 나는 포함이 안 된다.

엿그제 우리 교회에 젊은 형제가 한 명이 죽었다. 뇌종양이었는데 뇌혈관이 터져서 갑자기 죽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을 했다고 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에 와서 참 행복하게 살다가 갔다.

그 세계는 모르는 세계다. 신도 되고 사람도 되는 사람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생각해봐라. 같은 사람끼리도 사람을 잘 모르는데 신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어떻게 그 안에 포함이 되는가?

그러므로 확실해져야 된다.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여간에 확실해져야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확실해진다. 신이면 확실하게 경배를 해야 되고 인간이면 확실히 내가 그 안에 포함된다.

나는 이 대신했다는 말을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지만 포함이라는 말로 해야 나는 알아들을 것 같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야만 알지 포함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한 사람이 나를 포함하고 죽었으니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죽은 것이지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나도 죽었다고 하면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는가?

내 대신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가? 우리가 여기서 확실해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맛보기 어렵다. 나도 여기서 이것이 확실해지니까 금년에는 내가 새것이구나. 이 생각이 든다. 진짜 나 새것이네. 나는 진짜 새것이네. 내가 행동이 달라졌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다.

새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좋다. 나는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이라고 해도 된다. 그러면 그분이 새 분이면 나도 당연히 새사람이다.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

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롬6:3)라는 말로 했는데, 마지막에 이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6:4)는 것이다. 결국 새 생명이다. 새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되어 있지 그냥 내가 행동을 좀 바꾼다고 새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요한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말을 했다. 같은 말이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3)고 요한은 말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듭남이라고 왜? 생명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요한1,2,3서를 읽어봐도 전부 생명에 관한 말이다.

요한의 복음의 핵심은 아들이다. 그런데 바울 복음의 핵심은 함께이다. ‘In Christ!’ 이것이 없으면 다 해석이 안 된다. 요한의 복음은 생명으로 생명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고, 사도 바울의 서신은 ‘In Chris,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 말들이 다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은 미국 땅에 살아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단하다. 나라가 부자고 좋은 나라라는 것이 그런데서 차이가 난다. 미군 병사 한 명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부인이 우리 아는 사람이었다. 아기를 낳았는데 기형아를 낳았다. 그런데 이 기형아를 미국으로 수송해 가는데 병원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특별기가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탈 수 없다. 거기는 병원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어서 그 안에서 치료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비행기를 미국에서 가져와서 이 아기 하나를 태워서 가는 것이다. 시민권자이고 군인의 아이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군대만 가면 모든 혜택이 다 주니까 군인을 가려고 하는 것이다. 나라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이런 데서 엄청나게 나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 그 아이를 정부에서 다 돌보아 주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통 일이 아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말은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 말이다. 포함되지 않고 어떻게 거듭나겠는가? 뭘 해주니까 대신해주니까 내가 거듭나는가? 아니 아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준다고 그것이 내가 저절로 거듭나는가?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니까 어렵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지 사람들이 다 모른다. 거듭나면 이렇게 된다거나 저렇게 된다는 이런 것만 말한다. 거듭나면 사람이 행동이 바뀌진다는 것만 말한다. 교회에서 사람이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면 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뭐 하러 예수님에게 왔겠는가? 그 사람이 어디 행동을 고칠만한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나도 별것이 아니지만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별로 고칠 것이 없다. 누구와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이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 것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다. 혼자 있어도 별로 외로운지 모르는 사람이다. 산골 암자에 1년을 혼자 있어도 외롭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 나는 나 한 사람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고칠 것이 별로 없다.

니고데모는 나보다 얼마나 더 온전한 사람이었겠는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뭘 고칠 것이 있겠는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눅18:18) 선한 일에 대해 의논하자고 온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3)고 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어디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인가? 솔직히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어서 전보다 다른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가?

진짜로 예수 안 믿어도 거듭난 사람이 있다. 우리 집안에 냇도라는 섬이 있는데 붉은 돔이 주산지이다, 거기 부자 한 사람이 살고 있다. 봄에 쌀 한가마니를 주면 가을에 두가마니를 내는 것이 농촌의 이자다. 한 번 가난해져서 빚지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한 되박이라도 일 년에 부족하면 금년에 쌀 한 되박을 빌려오면 가을에 두 되박을 줘야 하니까 계속 빚이 불어난다. 그래서 가난

을 벗어날 길이 없었다. 이 사람이 도미 잡는 사람들의 돈을 다 긁어모았다. 여름에 도미 아무리 잡아도 다 돈이 이 사람에게 들어갔다.

6.25때 이 사람을 다리에 돌을 묶어서 바다에 빠뜨려버렸다. 고양이 죽이듯이 그렇게 했다. 고양이를 죽이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일 방법이 없다. 이 사람도 물에 빠뜨렸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들어갈 때 돌이 발에서 빠져서 이 사람이 살아났다. 그리고 나오니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면 봄에 쌀이 없는 사람은 쌀을 주고 보리가 없는 사람은 보리를 무상으로 준다. 이자를 받지 않고 준다. 여름에 도미를 잡으면 기왕에 팔 것이니까 그것만 자기에게 팔라고 했다. 이 섬사람들이 완전 살판이 났다. 그전에는 쌀 한가마니 빌리면 쌀을 두가마니 주어야 하니까 아무리 도미를 많이 잡아도 소용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바뀌지고 나니까 이자 안 받고 여름에 도미를 다른 사람을 주니 나를 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섬이 다 잘 살게 되었다. 완전 새마을 운동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공산주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거둬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 거둬냈다고 한다. 예수 안 믿어도 그렇다.

행동은 그렇게 바뀌지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거둬난 것이 아니다.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난 것이 거둬난 것이지 사람의 행동이 바뀌진 것이 거둬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행동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이 없으면 우리는 거둬난 사람이 될 수 없다. 다시 난 사람이 될 수 없다. 다시 난다는 말은 위에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뜻이다. 다른 생명이다. 나쁜 것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생명이 다른 생명이 되는 것이다. 죽었는데도 산 생명, 분명히 예수는 죽었다. 안 죽은 것이 아니다. 죽었는데 우리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다시 살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는데 다시 사는 것이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이 다시 산 것이다. 다시 산 것, 우리는 지금 받은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분이 죽으실 때 죽을 것은 다 죽었다. 없어질 것은 다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사람만 남았다.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산다는 그 말이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되는 길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지금 우리가 새것이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무슨 수로 있겠는가?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는 우리가 그분과 같이 있을 자리가 없다. 그가 위대할수록 우리는 더욱 그분과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분이 신일수록 더군다나 우리는 그분과 같이 있을 수 없다. 완전하게 사람이어야 된다. 구속은 완전하게 사람이어야 된다.

다른 일에서는 신이어야 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구속에 있어서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이 참이고 진실이다. 나는 모르겠다. 삼위일체는 잘 모르겠고, 아무리 들어봐도 잘 모르겠고, 하여간 나를 구속함에 있어서는 사람이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나를 구속함에 있어서는 사람이다.

신은 나한테 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신은 나에게 있다. 기도할 데가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에게 기도할 데가 있는데 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도를 받으실 분이 따로 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나는 내가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께 한다.

내 생명을 찾으려면 예수한테서 찾아야 한다.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 안에만 내 생명이 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오늘 나는 여러분 앞에서 선포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새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다.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다. 이것이 제일 재미있는 일이다. 우리가 새 사람 안에 산다는 이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모른다.

아담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이 뭐가 되었든지 다 옛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새것이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뭐를 잘해보려고 하는 것은 헛일이다. 아무리 해봐도 거기서 거기다. 차를 타고 간 놈하고 비행기 타고 간 놈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모른다.

아담 안에 있는 것은 다 옛 것이고 뭐가 되었든지 다 옛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새 것이다. 아담 안에서 뭐든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은 헛일이다. 아무

리 해 봐도 거기서 거기다. 차를 타고 간 사람과 비행기를 타고 간 사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아담 안에 있는 것은 뭘 해도 아담이다. 선한 것은 그리스도이고 악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아니다. 아담 안에도 선한 것은 많고, 좋은 것도 많고, 훌륭한 것도 많다.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것은 옛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혹시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니까 오줌 쌀 때도 있고 똥 쌀 때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처음부터 딱 완전하게 나오는가? 생명이 완전해도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 그러니 행동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뭐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씨를 심어 놓고 매일 파 보라. 그것이 자라나겠는가? 싹이 나는가? 아닌가? 매일 한 번씩 파 보라. 그러면 그것이 자라나겠는가? 교회에 와서 자기만 매일 점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씨를 심어 싹이 나면 처음에는 뿌리가 앙상한데 그것을 뽑아보는 사람과 똑 같은 것이다. 가만히 놓아두어야 크다.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보면 처음에는 공중에 떠 있다. 뿌리가 다 드러나서 겨우 땅에 박혀 있고 다 떠 있다. 가만히 두면 차츰차츰 뿌리가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을 더해 주려고 보리밭기를 했다. 가만히 두어야 살지 매일 한 번씩 뽑아 보면 어떻게 살겠는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자기를 점검해 보면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지 자기를 자꾸 점검하고 있으면 안 된다. 자기 보고 재판장 하라고 했는가? 검사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었으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아무 것도 없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좋다.

나는 우리 형제들의 생활의 변화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30년 똑 같은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와서 너는 대구교회에 30년 다녔다는데 저 모양이냐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30년 만에 이제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어떻게 30년을 참고 있겠는가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 처음 알아들었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좋았으니까 있었다. 있었는데 어느 날 더 밝아졌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냥 가 버린 사람도 있다.

30년 되어도 저 모양인데 우리는 언제 가서 되겠는가 하고 질려서 가버린 사람도 있다.

옛 세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새 생명의 세계를 보면 걸릴 것이 너무 많다. 우리 교회의 초창기에는 우스웠다. 밖에서 보면 교회인지 서문시장인지 모를 정도로 난장판이었다. 사람 사는 것이 그렇게 하니까 재미있다. 집회시간에 껌도 씹고 앉았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것이 인간시장이다. 우리는 인간시장이라고 한다. 전시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별 사람이 다 온다. 와서 보니까 부담이 안 되니까 자기도 와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은 와서 자기들끼리 있다. 담배순도 있다. 술 먹는 사람들은 술 먹는 사람들끼리 순이 있다. 얼핏 하면 몰래 나가서 술을 먹고 한다. 생각해 보라. 그것이 재미있다. 인간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재미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확 바뀌지면 얼마나 통쾌한지 모른다.

너희는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했다. 그 동안 아무 것도 안 잡수시고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요4:32) 그것이 뭐였던가?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 말을 너무 잘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래서 배고픈 줄을 몰랐던 것 같다. 그런 재미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바티칸에 가겠는가? 어디를 가겠는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다.

너무 뻑뻑하게 살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새로운 세계에 온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이지 뻑뻑하게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누가 뭘 하라고 했는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3:9)고 물었지 ‘네가 뭘 하고 있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것만 해도 세계가 얼마나 다른가? ‘아담아, 너 뭐 하고 있느냐?’ 이것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세계의 차이가 있는지 아는가?

주님이 주신 신약의 세계는 구약과는 너무 다른 세계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걸려서 죽었다. 저것은 율법을 어긴 놈이다. 뭘 한다고 해서 죽었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고 사는 것이다. 그분은 고생을 했지만 우리는 자유롭다.

이사야 53장이 그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의 최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53:5)라고 한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 그 다음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 내가 겪은 것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진다. 나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은 그 때문에 쉬워지는 것이다. 내가 어렵게 문제를 풀면 그 다음 사람은 쉬워져야 한다.

선생을 할 때도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선생에게 안 좋은 것이다. 천재들은 남을 못 가르친다. 답답해서 못 가르친다. 말도 못 알아 듣고 자기 수준에서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적당하게 고생하면서 알아가는 사람이 과외 선생으로서 최고다.

김**형제처럼 그런 사람이 과외 선생으로는 최고다. 혼자 독학해서 깨달은 사람, 서울대 출신을 데려다 놓으면 잘 할 것 같지만 속 터져 못 가르친다. 그런 아이들은 한 번 말하면 알아듣는 아이들이다. 그런데 과외를 맡길 때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을 맡기는가? 못하는 아이들을 맡긴다. 척척 알아들으면 뭘 하려 과외를 시키겠는가? 그것을 못 하니까 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조금 모자라는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야 잘 가르친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에서 고생했는지 알기 때문에 고생한 곳을 풀어줄 수 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뭐에서 고생하는지 모른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남을 가르칠 수 없다.

목사도 너무 훌륭하면 안 된다. 너무 훌륭하면 남을 볼 때 답답해서 안 된다. ‘왜 저것 밖에 안 될까?’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가? ‘말씀을 들은 지가 몇 년인데 왜 저 모양인가?’ 만날 이런 생각만 들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것도 재미있게 봐주어야지 같이 먹고 산다. 금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왔으니까 얽매어 있는 모든 것에서 풀고 새로운 세계에서 한 번 기를 펴고 살아보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외웠다. 잘하지 않은가? 외우니까 된다. 안 외워지는 데도 억지로라도 외우니까 된다. ‘the old has gone.’ 가버렸다는 것이다. ‘the new has come.’ 쉽다. ‘the new has come.’ 어떤 성경에서는 ‘the new is here.’ 했다. ‘the new is here.’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금년에 좀 새롭게 살자. 확 터놓고 새롭게 살아보자. 같은 교역자들끼리니까 우리끼리는 확 터놓고 살아도 된다. 평신도들 앞에서는 좀 불안할지 모르지만 우리끼리야 그것이 무슨 흥이 되겠는가? 자유롭게 살아보자. 여기서 실수해도 괜찮다. 교회 가서 실수 안하면 된다. 여기서는 실수를 해도 된다. 그것을 겁내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if anyone i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the new creation has come.’ 새로운 피조물이라. ‘the old has gone.’ 옛 것은 지나가 버렸다고 한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매일 외우시기 바란다.

외우고 한 번씩 웃고 찬송하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 재미있다. 아무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 보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것을 잘 못하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하니까 된다. 그런데 목회 하느라고 딱 긴장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긴장을 어디 가서 풀어야 된다. 밤에 혼자라도 풀어라. 일어나서 춤도 춰 보고 휴가를 안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나도 박수 하나도 못 쳤다. 내가 있던 교단이 박수를 치던 교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수치는 이것도 하려니까 어색했다. 어색하면 혼자 해 보라. 그러면 된다. 혼자 마음 놓고 해 보라. 마음 놓고 할렐루야도 해보고 얼마나 좋은가!

Refresh, 새로, 자꾸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교역을 하시는 분들이 자유로워져야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로워지지 교역하는 사람이 딱 긴장해 있어 보라. 밑에 있는 사람은 얼어서 있다. 그런다고 쫓아내면 나가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방, 하나님도 해방되는 세상에 우리가 어디에 묶여있을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그분도 답답해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려 해도 사람이 없어서 못 찢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확 찢어 버렸다.

우리가 못 찢을 것이 어디에 있으며 못 들어갈 곳이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부끄러울 것이 또 어디에 있는가? 좀 잘못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성

인군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같이 살 사람, 함께 살 사람이 필요하다.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외롭겠는가? 옛날에 한학 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나 고고한 분들은 너무 외롭다. 아무도 없으니까 내 생각에 퇴계 선생 같은 분들은 좀 외로웠을 것 같다. 들어 보니까 그런 분들도 뒤에 인간성 속에는 재미있는 것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옷을 입고 딱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 얽매이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보고 해방하라고 해도 개판을 치겠는가? 내가 안심하고 하는 말이다. 평신도들 보고 해방하라고 하면 술 먹고 이럴 줄 모르는데, 여러분에게 아무리 해 봤자 술집에 가겠는가? 어디를 가겠는가? 그래서 안심하고 하는 것이다. 오히려 묶여있는 것이 더 쉬우니까 묶여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야 된다. 풀어야 다른 사람도 풀어진다.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다 긴장한다.

새해라고 이야기를 좀 과하게 한 것 같다. 이해해 주시고 금년 한 해도 더 재미있게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재미있게 대화도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